조선대 동북아연구소 Vol.21 No.2 2006 pp.179~196

러시아지역 고려인 기록정보자산의 보존과 관리**

김 홍 길*

목 차

Ⅰ. 서문
Ⅱ. 마르크스의 계급관념
Ⅲ. 분석도구로서 계급
Ⅳ. 마르크스의 "계급"에 대한 한 해석
Ⅴ. 계급분석의 현실적 적용

[논 문 요 약]

현재 러시아 영토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러시아 고려인들은 근대적 의미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첫 무대를 이끌었던 한민족의 후손들이다. 이 연구는 19세기 후반 이후 21세기에 이르는 150년간의 역사 속에서 러시아 고려인들이 한민족 정보자원을 어떻게 창조, 발전시켰으며, 오늘날 기록의 형태로 구축된 한민족 기록정보자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했다.

러시아에서 한인 촌락공동체 사회가 형성된 1860년대 이후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에서는 1930년대까지 한반도로부터 유입되는 한인들에 의해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동북부에서 시작된 고려인의 이탈은 농업이주, 정치적 저항운동의 형태를 통해 전개되었으며, 그 형태는 농업이주, 망명이주, 이념적 이주, 소련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이주의 형태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고려인사회는 한국독립운동의 해외 거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있어 개발자(economic developer)로서 역할하기도 했다.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직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운명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으나 이를 극복해내었고, 소비에트 꼴호즈 건설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특히 혹독했던 디아스포라의 생존환경 속에서 고려인들은 한민족의 문화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차세대에게 계승시키고자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L2002)
이 연구를 위해 현지조사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다수의 고려인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

노력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념적 지역적 단절을 통해 고려인의 정체성이 적지 않게 현지화(assimilation)되기도 했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러시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중간자로서의 역할 기대치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적지않은 고려인들이 한인정보자산의 발굴과 러시아 속 한민족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러시아지역 소재 한인정보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세계한민족 기록정보자산의 재발굴의 가치 뿐만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고려인의 자존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지역 소재 한민족 정보자산의 발굴과 재인식은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과 정보생산자를 연결하는 범국가적, 범민족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고려인, 디아스포라, 정보자원, 보존관리, 한인공동체. 기록관리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문제제기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국경선 바깥세계와 등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지구상에는 인력, 자본, 정보가 거대한 지구를 무대로 하는 거대한 이동을 형성하는 유목사회(nomadic society)가 펼쳐지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 속에서 출생지와 성장지가 국가를 초월해서 펼쳐지는 글로벌 차원의 디아스포라가 전개되고 있다. 한민족이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꿈꾼다면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아야 된다. 이 연구는 한반도 거주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70만 규모의 재외한인 사회의 역사적 발자취를 재외한인사회가 일구어 온 한인정보자원을 통해 접근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 고려인 사회가 이룩한 한글정보자원의 성과와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했다.

유라시아대륙의 수많은 국가들과 광활한 영토를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냉전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이념적 제약이 존재했다. 재러 고려인 사회는 19세기 이후 시작된 세계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주인공들이었고, 해외한민족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였지만, 1945년 이후 분단과 냉전구조 속에서 사실상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미 20세기 초에 들어서 러시아 연해주지역에 형성된 러시아 한인공동체는 해외 한민족 정보자원의 중요한 생산 거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150년에 가까운 이민의 역사를 통해 수많

은 사회적 시련을 극복하고, 한민족공동체를 유지시켰고, 다양한 정보자원을 발전시켜왔다. 이들의 사회문화적 성장은 1920년대-1930년대까지 절정기에 달했으나 1937년 강제이주를 겪으면서 급격히 쇠퇴현상을 경험했다. 고려인사회의 해체 속에서 정보자원의 생산매체와 유통채널은 붕괴되었고, 기존의 생성 자원들도 분산 보존되거나 훼손 내지 소멸되었다. 특히 강제이주의 경험은 고려인의 정보자원의 생산자, 소비자, 관리자의 위치를 크게 변화시켰다.

분단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재러 한인들이 어떻게 한민족 정보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특히 고려인 관련 기록의 비공개와 자료접근의 제약이 존재했다. 다행히 소연방 몰락이후 러시아연방에 의해 고려인관련 국가기록이 개방되면서 한국사회에서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발굴과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적잖은 연구들이 러시아대륙에 흩어진 고려인 정보자원을 다루는데 있어 개별 연구의 현실적인 한계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 집거지와 고려인 정보자원의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자원의 관리와 보존상태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인 정보자원 생산주체의 자료생산 내역을 해명하고, 정보자원의 관리와 보존실태를 소장기관별로 비교 검토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고려인의 정보자원의 유실과 보존실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해외자료의 발굴에 있어 고려해야 될 현지의 상황적 이해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연구범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1단계로 도서관, 자료실, 언론, 출판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학자들의 연구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용역과제, 행정기관의 문헌을 분석했다. 2단계로 인터뷰면담으로 각 지역의 도서관 및 자료실 관리자, 사서직원등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보존실태와 운영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3단계로 자료열람실을 방문하여, 자료목록과 원문대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현지탐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해당지역의 목록이나 관련문헌에 대한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①정보자원 소장량이 가장 많은 곳, ②기존 연구에서 정보부족 때문에 생략된 기관들, ③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과의 접촉, ④관리기관의 책임자와의 중간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체적인 보존관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획득했다.[1)]

---

1) 연구팀은 러시아의 정보자원 기관으로 20개 도서관(국가문서보존소 및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언론사,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원문자료와 자료목록을 수집했다. 그 결과 총 약 2만5천개 이

수집 대상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 ①고려인이 생산-유통시킨 자료는 연구대상 목록에 포함시킨다. ②1937년 이전에 생성된 자료는 형태와 관계없이 수집대상에 모두 포함시킨다. ③1945년 이후 자료들은 러시아어로 만들어진 자료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이름 중 한국인 성씨 표기자를 선택했다. ④1950년대 후반 이후 평양에서 출판된 북한자료의 경우 교과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외시켰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지역의 정보자원 생성현황 및 매체현황을 1930년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러시아연방에서의 기록관리구조와 고려인단체에 의한 자료보존 및 자료관리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Ⅱ. 러시아 한인공동체의 변동과 정보자원의 생산형태

1. 고려인사회 한인공동체의 발생론적 특성

19세기 이후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출발점은 1860년대 간도와 연해주로 넘어 간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그 중에서 최초의 이민자 그룹을 형성해 체계적으로 해외 한인촌락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극동러시아의 연해주지역으로 진출한 한인들이었다. 이 지역 한인들은 출생국인 조선이라는 호칭 대신에 스스로 자신을 '까레이스끼'로 불러왔다.[2] 고려인 이민자 집단은 극동 시베리아 건설의 중요한 건설자였다. 이들은 러시아의 농촌공동체의 형태를 가진 촌락공동체를 만들었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인프라 시설인 도로와 항만 등의 건설에 동원되었다. 스탈린시대에는 주로 소비에트 꼴호즈 건설자로서의 삶을 이어왔다. 19세기 말까지 한인이주는 자발적인 경제적 동기의 이민형태였다. 그러나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제2의 한인 디아스포라 물결은 경제적 동기와 더불어 한반도의 일제강점이라는 요인과 결합된 디아스포라로써, 해방, 저항, 정치적 도피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한편 1937년 전개된 제3의 물결은 연해주 고려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소련정권에 의한 폭력적인 억압적, 성격'의 디아스포라였다.

상의 고려인 문헌목록을 획득했다. 이 중에서 한글과 러시아어로 제작된 문헌목록 중에서 약 2천개 이상의 목록카드를 복사했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850개 정도의 자료는 메타데이타로 활용될 수 있는 서지정보가 포함된 겉표지, 내피, 목차 등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이 밖에도 1990년대 후반이후 러시아고려인들에 의해 제작출판된 40여개의 고려인 문헌자료의 단행본의 원본을 수집획득했다. 본 연구팀은 7, 80대 고려인 학자들에 대한 구술녹취작업도 실시했다.

2) 고려인은 구소련지역 전체에 살고있는 구소련국적의 한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모스크바, 상뜨 페테르부르그,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를 비롯한 70여개 지역과 중앙아시아 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제1차 디아스포라의 시기에 고려인들은 생업의 수단으로 주로 농촌에 주거하며, 벼농사, 옥수수, 콩과 같은 농작물을 재배했고, 주로 농촌단위의 촌락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제2차 디아스포라시기에는 도시건설이 확대되면서 많은 고려인들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교육기관이 들어서면서 체계적인 정보자원 생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제3차 디아스포라는 고려인의 삶의 근거지를 연해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킨 것이었고, 정보자원의 형성도 좀더 분산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김정현 외, 2006). 또한 정보자원의 관리와 생성이 고려인사회에서 소련정부로 이동함에 따라 소련정부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정보자원의 지역적 거점, 관리적 거점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고려인사회에 나타난 경험적 결과들은 정보자원의 생성과 변화가 고려인들의 삶을 반영하는 시대의 거울이자, 기록을 통해 특정시대에 접근하는 나침반(a compass)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3)]

2. 한인공동체 건설의 역사적 경험

러시아변강지역으로의 조선백성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봉건제적 수탈, 경제적 궁핍, 일제의 침탈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해 왔다.[4)] 그러나 이 시각은 한민족 해외이주활동의 자생적 요소를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1863년 이후 생성된 연해주지역의 고려인공동체는 그들이 '수탈과 폭정'으로부터 도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주라는 형태로 근대화의 길을 걸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 두만강 이남지역에 살던 조선 백성들은 북경조약을 통해 연해주에 진출한 러시아 지방정부의 허락을 받아 두만강을 넘어 이주농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조선과 가까운 국경근처에 정착하여, 포시에트지역과 수이푼江 등지에서 한인 촌락(村落)공동체를 형성하였다.[5)]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한인주거지는 니꼴스크, 우수리스크, 수찬구, 블라디보스톡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연해주 한인공동체는 역사적 성격이 변화된다. 항일운동이 연해주 일대에서 증대하고, 의병과 독립군의 거점이 이동해 옴에 따라 고려인사회는 '저항과 해방구'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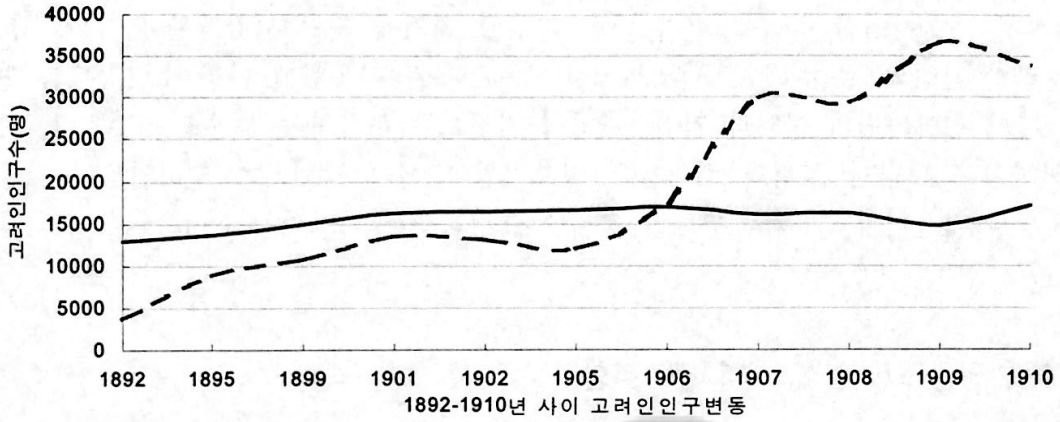
3)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1. [Association of Koreans in Kazahstan. Newsletter. No.1] Алматы, апрель, 1996.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 цев Казахста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бюллетень. #2. [Association of Koreans in Kazahstan. Newsletter. No.2] Алматы, апрель, 1997.

4) Haruki. Vada, "Koreans in the Soviet Far East 1917-1937: Koreans in Soviet Union," ed., Soon-Suk Pak, *Papers of the Center for Koreans Studies*, no. 12, 1989, pp. 24-59.

5) 최초의 고려인 이민자 기록은 이르쿠츠크 국립문서보관소, 서고 24, 목록II/3, 보관단위24, 장2-3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ЦГА РиДВ, ф.87 ОП.1 Д.278. Д.1.

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지식인과 독립운동가들의 유입으로 활발한 한글자원 정보자원 생산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림 II-1〉 러시아 초기 고려인사회 인구변동(1892-1910)



자료 출처: 국동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자료인 Рагоза А. Крат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 цев в наши передедым материалам Приамур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1905. унгерберге П. Ф. Приамурский 1906-1910гг, Спб 1912. с.3 재구성 함(—은 국적취득자,…은 국적미취득).

러시아 고려인들의 근원적 고향은 1860년대부터 1937년까지 약 70년동안 고려인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전까지 한인사회의 무대는 연해주였다. 이 시기 극동지방은 160개 이상의 농촌 및 지역소비에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한인의 90% 이상이 거주했던 포시예트에서는 한국어로 행정업무가 처리되었고, 한인 행정지구로 불리었다. 따라서 연해주는 극동지방에 거주하던 소연방한인들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다.[6] 고려인사회에 나타난 변화는 인구확대와 함께 한인공동체의 활동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1914년까지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20,109명을 포함 총 64,309명 이 연해주지역에 정착을 하였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 1917년까지 104,660명으로 늘어났다.[7] 이 중에서 연해주 거주 고려인의 인구는 81,825명은 극동연해주지역의 인구의 1/3에 해당했다. 1910년대 후반 이후 연해주일대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新韓村) 등 한인밀집지역이 형성되어 한인공동체의 중심지를 형성했다. 또한 다양한 한인사회단체가 설립되고, 한인학교가 세워졌고, 한인신문과 잡지도 발간되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 당시 고려인사회는 레닌정권이 억압받는 민족의 권리와 독립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다. 특히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이런 현상은 강화되었다. 고려인들은 극동지역의 백군과

6) 김떼밀,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제7호, 1998, pp.57-58.

7) Б. Д. Пак, "Великий Октябрь и Корея (Накануие Мартов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1919 года)", Источник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тран Востока: Узловые П-роблемы Теорий p.105.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 소비에트 정권에 합세하여 사회주의공동체를 출현시켰다. 이에 따라 출현한 한인의용대는 총 36개 부대에 3,700명에 달했다. 연해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가지게 된 고려인공동체는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초기에는 러시아 소비에트연방은 시베리아 정치활동의 주역으로 고려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8] 그러나 소련정부는 제정러시아시대 전통적인 식민정책이었던 분할통치(divide and rule)전략을 재현시켰고, 국적미소지자들을 추방시키고, 고려인사회를 분열시켰다. 시민권획득과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 토지분배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문제가 대두하면서, 많은 고려인들이 배제되었고, 이것은 한인들의 불만을 초래시켰다.[9] 이런 상황에서 소련정부는 1920년대 말 고려인의 분산이주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다.[10] 이런 과정에서 1930년 초에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기아사태로 인해 농업기술자로서 고려인들이 초청되면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농업이주의 길을 선택하기도 했다.[11]

스탈린시대 강제이주는 극동지역에 독자적인 한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고려인사회가 절망적인 해체과정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1937년 8월이후 모스크바당국은 강제이주 계획을 집행하기 시작했으며, 강압적인 주민통제에 의한 강제수송이 진행되었다.[12] 이 강제수송은 11월까지 이어졌고, 상당수의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분산배치되었다. 그러나 고려인은 비극적인 재이주과정을 겪으면서도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수송된 고려인들은 현지에서 재분산되었으며, 18,461가구가 카자흐스탄의 9개 주에 집단농장에 배치되었고, 10,946가구가 우즈베키스탄의 6개 주에 분산배치되었다.[13]

강제이주 후 고려인들은 연해주지역으로의 방문이나 접근이 제한되었고, 스탈린 사후에 부분적인 연해주 재이주가 이루어졌으나 연해주 한인공동체의 기반은 완전 붕괴되었다. 이후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출현한 것은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였다. 1991년 4월 26일 러시아연방 최고회의는 '탄압받는 민족의 복권에 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법률'을 채택하였다.[14] 이를 계기로 탄압받은 민족들의 국가적 구성, 정치적 권리회복, 사회적 권리회복, 문화적 권리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

---

8) Арсеньев В. По. Уссурий скому краю. Arsen'ev V. Travels in the Ussurj Krai] M. 1955.
9) 소비에트 초기 고려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러시아극동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서고 p-38, 사건 942. S.D. 아소노프, 〔우스리스크 지방의 한인들〕, 29. 보리스, 부가이, 앞의 책, 2004. 226.쪽.
10) 1927년 이후 소비에트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비밀리에 총 15만명에 달하는 극동 고려인 중 2/3를 5년이내에 분산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11) 한인 이주 5개년계획이 추진되던 시기에 일부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갔고, 이들은 벼농사전문사로 파종면적과 곡물수확량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12) 1937년 10월 25일 예조프 소련내무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극동지역 한인이주가 완료되어 총 36,442가구 171,781명의 한인 이송을 완료했음을 보고했다.
13) 스탈린이 고려인의 강제이주를 채택하게 된 동기로 항일세력을 극동에서 제거하고자 했던 본과 극동지역 긴장완화를 원했던 소련정권간의 암묵적 합의를 들 수 있다(박미하일, 1997).
14) 심헌용.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의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제8호, 1999, pp.374-375.

앙아시아의 경제적인 위기요인과 농촌의 해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부흥운동의 부활추세 등으로 나타난 민족적 차별을 피해 적잖은 고려인들이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선조들의 고향인 러시아 연해주로 재이주를 희망하게 되었다.[15] 2006년 현재 러시아 연방에는 148,000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CIS지역 뿐만아니라 중국조선족, 한국 국적의 교포들이 살고 있다. 이 중에서 모스크바 거주인구는 1만5천명이고, 상뜨페테르부르크에 1만명, 극동에 8만명, 남부러시아의 로스토프에 3만명, 볼고그라드주에 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30,000명으로 이 중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한인의 규모는 약 2만명에 달하고 있다. 사할린에는 39,500명(남 19,200명, 여 20,300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16].

3. 연해주지역에서 생산된 고려인 정보자원의 특성

(1) 한글소식지

연해주지역 고려인들은 정착지에서 공동체를 수립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는 정보자원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과 기록자료들이 생산되었다. 출간된 문헌자료들은 신문이나 월간잡지, 소식지, 각종 단행본서적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등학교, 꼴호즈 청년학교용 교과서출판물, 개인이 남긴 단행본서적, 산업분야, 문화분야, 조선문목록집, 사회주의학습서적 및 당 출판물 등 다채롭게 발전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인 커뮤니티를 결속시킨 문화적 매체는 잡지와 출판으로 이어지는 정보자원의 생산이었다. 1908년 2월 26일에 고려인 최초의 한인신문 〔해죠신문(海朝新聞)〕이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3개월 동안 순한글로 발행되었으며, 5월 26일 제75호까지 발간된 일간지였다. 이 신문은 교포신문이자 계몽신문이고, 최초의 연해주 한인신문이었다. 해죠신문 이후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에서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었다. 1908년부터 1917년까지 대동공보(大東共報), 대양보(大洋報), 권업신문(勸業新聞), 자유종. 청구신보. 일세보, 한인신보의 발행이 이루어졌다. 발행주최들도 노령 한인회, 청년근업회, 권업회(勸業會), 한인사회당, 고려족 연합중앙총회, 연해주한인사회당, 신한촌민회와 같이 정당, 사회단체, 촌민회 등에 의해 자료들이 발간되었다.

연해주 한인사회는 권업회를 통한 통합적 연대노력이 진행되지만, 분열을 보이다가 1910년을 전후로 연해주 항일독립운동세력은 국내출신에 따라 서울파, 평양파, 함경도파 등 노선갈등을 겪으며, 치타와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양대세력으로 분리되었다. 1919년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세력이 출현하면서 고려인 정보자원의 생산매체가 형서되었다.

---

15) 최영표. 러시아 연해주의 민족교육의 실태와 지원방향. 전남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1세기 재외한인 재인식과 동북아 지역협력", 2002. 10. 15. pp. 143-165

16) 新井佐和子. サハリンの韓國人はなぜ 歸れなかったのか. 東京 : 草思社, 1998, p.104.

이후 1937년까지 고려인정보자원은 약 18개 정도의 언론기관이 출현하고 사라졌다. 이들을 통해 고려인의 기록들이 남게 되었다. 이 시기에 고려인 문헌자료의 변화된 특성은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로프스크를 떠나 고려인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간지역과 발간주최들도 다양한 계층에 의해 나타났다.

1919년 4월 2일 한족연합회에서 제작된 것으로 국민성이라는 잡지는 3.1운동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들은 1920년 9월에 자유보를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대중의 목소리, 1920/08〕, 〔새세계, 1920/06〕, 〔새벽북, 1920/05〕, 〔적기 1920〕, 〔동아공산 1920/08〕 등이 1920년에 만들어졌고, 발간자들은 유진구, 최태일, 오성묵, 이다몰, 이인섭, 나만춘, 한봉익, 이성, 박승만 등이었다. 이 잡지들의 특징은 주로 옴스크와 이리쿠츠크지역의 한인공산당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동아공산〕은 이르크추크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만든 기관지였다. 1921년에는 러시아공산당 극동국한인지부에서 계봉우가 발행인이 되어 〔노동신보〔를 치타에서 발간했다. 1922년 블라디보스톡 신한촌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위회보〕를 발간하였다. 1922년 8월에는 러시아공산당 연해지부연합회 산하 고려인출판부에서 〔붉은긔〕가 발행되었다. 이상의 잡지들은 대부분 몇차례 이상 발행되지 못했다.

1923년에는 고려공산당 해삼위지부에서 〔선봉〕이라는 잡지가 발간되면서 고려인의 소식을 담는 잡지생산이 안정되었다. 〔선봉〕은 1-3호까지 제호를 〔3월1일〕이라고 했으나 제4호부터 〔선봉〕이라는 제호를 사용했고, 1937년 9월 12일 폐간될 때까지 주1회 또는 주2회(일, 목)에 걸쳐 발간되어 고려인사회의 중심적 정보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전문서적출판도 이어져 고려인사회에서 인기리에 발매된 것으로 〔연해주어부(1930-1933 총161호)〕, 〔광부 1932.11-1033.1〕, 연해주 변강위원회 문화선전부에 의해 만들어진 〔당교육 1932.11-1934.3 총 12호〕, 아무르주 고려인들의 2차5개년계획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공산당 기관지 〔동방꼼무나 1929-1933.4〕, 포시에트 엄떼에스정치부에서 김아파니시에 의해 발간된 〔공격대원-총 144호〕, 블라디보스톡나젠스크정치부에서 발간한 〔쓰딸린네트 5일간격, 1933.12-총 9호〕, 스꼬또브 구역당 위원회가 만든 〔레닌광선〕 (1936.10- 1936.11 총 7호발간)이 있었다.

(2) 한글출판교재

소비에트건설기 초기 고려인들에 의한 교육출판이 활발해진 것은 1924년 이후 부터였다. 대표적인 책으로는 〔붉은아이〕, 원동로력학교용 〔새독본〕 제1-4권의 형태(1924-1927)로 확대 발간되기도 했다. 연해도 교육부에서 편찬한 〔붉은아이〕(1924)는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고려말과본〕(1932) 같은 책자들이 초등학생부터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급되었다. 이것은 한국어교육을 위해 성인을 배포된 〔고려어교과서〕(꼴호즈청년학교용, 1932)나 〔꼴호즈건설자〕(1931) 같은 형태의 책들도 발간되었다. 〔공격대

원]은 문맹퇴치용으로 학교에 보급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1930년대 중반이후에는 고려인교과서라는 이름의 책들이 대거 발간되었다. 게봉우, 강채정의 〔고려어교과서〕, 게봉우의 〔고려어교과서〕(1932). 어린투사(1932), 오창환의 〔조선어교과서, 문법 및 정서법〕(소식자학교용, 1934). 〔중등학교 조선어문법교과서〕(1934), 〔자란이의 새독본〕(1930-1931), 〔새학교독본〕(1930), 〔새학교〕(1929)등이 대표적이다

수학교과서는 16종이 발굴되었다. 그 중에서 초급수학이나 산수는 초보적 수학원리를 다룬 것이고, 수학과본은 약간 중등급 성인을 위한 콜호즈청년학교 교재였다. 수학교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산수 또는 산술교과서로 불렸고, 5학년 이후 중등학교교재는 수준이 높아져서 7-8학년 교재에는 기하학과 기하학문제풀이, 평면삼각법을 다루었다. 이것은 교과서 제작이 학습단계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 한글 수학교과서는 모스크바 학용출판사나 교육도서출판사에서만 발행되어 사할린지역과 중앙아시아 일부 한인학교에 보급되었다.

1920년대 이후 러시아 고려인들이 쎄쎄쎄르 등지의 콜호즈와 각급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지리교과서나 화학교과서, 물리교과서는 매우 수준이 높다. 그들은 이미 러시아어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번역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각 책자들은 대부분 간략한 형태로 출판되었고, 비교적 쉽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나 삽화들이 들어있었다. 세계지리 6학년용 교과서의 경우 천연색의 컬러화보를 사용하여 만들기도 했는데, 아주 화사하고 색감이 좋아 오랜세월이 지났지만 표지색이 바래지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지리과목의 교과서는 학년구분은 1-3학년까지는 몇 개가 없고, 주로 4학년이후부터 정해져 발간되었고, 꼴호즈에 배포된 〔지리학과본〕은 청년층용이었다. 발간 시기는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집중되었고, 1950년대 이후 출판물들은 주로 모스크바 국립교육출판사와 국영학용서적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주요 저자는 바로꼬, 쩨렌호브, 쓰차쓰뜨녜브, 뽈로윈끼나등의 러시아학자들의 저서를 러시아고려인인 리진수등이 번역하여 한글로 출판한 것이었다.

화학교과서는 주로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과목이었다. 화학교재는 주로 실제 응용가능한 화학이론과 실제를 혼합해서 다루었으므로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꼴호즈 청년학교 1학년용부터 시작해서, 중등학교화학교과서와 같은 교재가 발간되었고, 주요 발간지역은 원동 국립출판부에서 출판되었고, 저자는 웨르홉쓰끼, 골리드파르브, 쓰모곤쓰끼이, 야르골리드 등 소비에트 국영출판사 교재는 출판부에서 한글로 번역출판 한 것들이다. 교재의 수준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주로 목차들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것이 특징이다.

물리학교과서는 중등학교 교재와 꼴호즈청년학교용이 분리 제작되었다. 제작시기는 1931년부터 1934년에 집중되었고, 물리과목은 5학년부터 보급되었다. 물리학 교과서는 소련의 기초과학분야의 수준을 짐작할 만한 학습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페이지들은 대부

분 100페이지 안팎이었고, 최대 178페이지에 달하는 책들도 있었다.

(3)산업분야 한글출판물

고려인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능별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자원을 정리하고, 출판했다. 국립레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 중에서는 러시아 고려인들이 산업분야별 지식을 정리한 소책자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대표적인 저작들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산업관련 저서는 세부 분야에 따라 크게 농업, 어업, 광업, 상업, 계획경제라는 5대 분야에서 총 15종에 연해주와 사할린 지역에서 발간된 자료 목록은 총 185 건에 달했다. 농업분야의 주요 관심은 파종기, 또는 곡물 수매, 농산아르쩰리의 규칙, 농업학교 교육용 교과서인 〔농업과본〕, 정지, 파종, 정곡귀게에 대한 간이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출판물이 주로 1930년부터 193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 어업분야의 출판물도 어업의 기술, 어업시기, 어업인을 위한 청년동맹 조직 규약과 같은 내용을 다룬 책자들이 발간되었다. 1930년대 고려인들의 문헌자료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당대의 시대적 삶의 기록에 대해 비교적 꼼꼼하게 잘 기록했다는 점이다. 또한 단체계약이나 농민상조회규정과 같은 자료들도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간혹 용어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으며, 이는 언어학적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4)여성문제 및 질병과 건강관련 분야의 문헌자료

1930년대 연해주지역에서 고려인 여성의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여러 자료들이 문헌에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하바로프스크나 블라디보스톡에서 목록만 있었고, 문헌은 발견되지 않은 자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역문서목록을 세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관련 자료들은 주로 러시아공산당연해도 위원회내 여자부에서 만든 〔고려로력녀자〕라는 자료가 1925년에 발간되었다. 1927-1928년에는 여자지도원의 지남과 여자대표라는 지도강령이 배포되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공산당 조직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사회적으로 수평적인 남녀관계가 형성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건강이나 질병과 같은 문헌들도 상당히 많이 출간되었다. 1925년부터 1932년 사이에 출단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발간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교육, 성교육, 탁아소에서의 위생지식, 전염병예방법, 아편경고책자, 여자위생, 식사와 새풍습, 천연두와 종두, 적십자활동, 폭음경고책자등이 나왔다. 이 중에서 아동의 성적성숙과 성적교육이라는 책자는 당시 고려인사회가 성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비교적 일찍 이 문제에 개명한 사회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5)사회문화 및 생활관련 문헌들

1930년대 고려인사회에서 발간된 책자들 중 문화와 생활관련 책자들도 상당히 많이 출판되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칠어를 어떻게 간잡할까〕라는 책자는 고기의 보관에 관한 상식을 기록한 책이었고, 〔채소저장의 간호법〕, 〔토끼치는자의 지남〕*, 〔원변강에서의 양잠업〕, 〔원동변강에서의 양장업〕, 〔정어리〕, 〔도야지 치는 법〕, 〔잡초와의 투쟁〕, 〔깜부기와의 투쟁〕, 〔원동의 벼농사〕, 〔양봉업〕, 〔닭치는 법〕, 〔양잠상식〕, 〔콩재배법〕, 〔겐작고*사용〕 등 간략한 소책자들이 만들어졌다.

명절관련 기록으로 게봉우의 〔고려인의 구력과 명절미신〕책자가 있으며, 고려인의 문화와 풍속에 대해 문하우젠이 경험담을 기록한 〔문하우젠이 격근 별아별히 한인한인들〕같은 자료도 문화적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진 문헌자료라 할 수 있다.

Ⅲ. 연해주 한인공동체 해체이후 정보자원 생산과 관리

1. 모스크바에서의 고려인 정보자원의 생성

1945년 이후 러시아 고려인사회는 정보생산형태가 한인사회공동체 중심으로부터 지식인중심의 한국학연구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일찍부터 모스크바지역에 진출한 고려인 명망가들과 지식인들은 정보자원 발굴자(seeker)이자 관리자(manager), 한반도관련 지식의 전달자(knowledge conveyor)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독자적 한인커뮤니티의 해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정보자원 생산활동이 정체상태에 있었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따라서 모스크바지역은 고려인 정보자원의 관리에 있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써 연해주공동체의 해체이후 단절상태에 처했던 고려인 정보자원은 모스크바 중심의 지식인(언어학자, 역사학자 등)의 열정적 공헌 덕분에 다시 재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려인지식인들의 역할 증대는 2차세계대전 이후 한반도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소련정부의 정책전환 요인을 빠트릴 수 없다. 북한지역이 사회주의권으로 편입되고, 한국전쟁이 발생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련정부는 한반도문제를 전담할 전문가들의 양성이 전략적으로 필요했다. 냉전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소련에서는 고려인출신의 한국연구가 활성화되고 중요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사브쉬나와 같은 한반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모스크바에서 젊은 고려인들의 언어교육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련정부는 모스크바대학에 동방학연구소, 소련과학아카데미에 동방민족연구소, 레닌그라드대학에 동방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타쉬켄트대학에 한국어와 역사학 과목을 개설하는

등 고려인들을 활용하고자 했다. 1948년 소련과학아카데미는 레닌그라드에서 본부를 모스크바로 옮기고, 1950년 8월에는 태평양문제연구소를 동방학연구소를 통합하고, 한국학과를 신설했다. 1956년에는 소련 과학아카데미에 '일본 및 한국학과'의 학과장으로 게오로그 김(George Kim)이 임명된다. 고려인학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소련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소련에서 한국학연구는 매우 중요한 성과로 간주되게 되었다.[17] 소련에서 한국연구는 역사학 분야와 언어학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다. 1945년이후 1970년까지 1,126권의 한반도 관련 자료들이 대대적으로 출간되었고, 연구분야도 국제관계, 경제, 일반상식, 정치, 역사 등의 저서들이 다양하게 출판되었다.

모스크바대학 역사학과 미하일 박(Micheal Park)은 〔삼국사기〕를 번역하는 등 러시아 한국사학을 발전시켰다. 상뜨뻬쩨르부르크대학의 보로비예프(M. Vorobyov)는 고조선(모스크바, 1961)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상뜨뻬쩨르부르크대학 림수교수도 문학분야에서 많은 러시아고려인학자를 배출시킨 인물로 손꼽힌다. 이들을 통해 러시아인들과 비고려인들 이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려인문학에 있어 많은 발전이 나타났다. 모스크바대학의 쉬파예쁘(Shipayev)의 〔일제의 한국식민지화, 1964〕, 쟈가이(G. Tyagai)의 〔19세기 초기 조선민중운동과 사회사상, 1968〕 대표적인 저작물이다. 한국현대사연구로는 게오르그 김의 〔조선노동자계급, 1960〕, 샤브시나의 〈한국사개론, 1958〉이 초창기 연구저작들이다.

한편 한국어 연구는 1951년 만들어진 〔한러사전〕의 발간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모스크바 동방민족연구소는 〔러한대사전(1966)〕과 〔한국어(1961)〕를 펴냈다. 이 밖에도 한국문학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2년 〔춘향전〕과 〔구운몽〕이 번역출판되었으며, 1960년에는 〔박지원 연구〕, 1962년에는 〔시조연구〕, 1975년에는 〔한국 중세소설〕 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 1991년 출판된 〔세계신화백과사전〕에는 한국신화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처럼 1945년이후 1970년대까지 고려인 지식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정보자원의 생산은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 사상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어로 옮기는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극동 시베리아 지역 고려인 정보자원의 폐허와 재생

(1)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 정보자원의 재생

강제이주 이전까지 연해주에서는 적어도 10여개의 출판사와 18개정도의 신문사가 있었

17) 1960년 소련공산당 22차 당 대회에서는 현대연구의 중요과제의 하나로 한국의 현대사연구를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한민족의 독립 및 해방운동, 한국의 노동문제,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등 이었다.

다. 고려인신문은 러시아판도 있었지만 한국어판 신문이 총 7개가 1937년까지도 발행되고 있었다. 강제이주 이후 연해주 고려인사회가 자취를 감추면서, 고려인들에 의해 형성된 많은 문화적 업적들과 정보자원들이 파괴와 약탈, 방화를 거쳐 대부분 소멸되고 일부 자료들만이 연해주지역정부의 관리를 통해 남게 되었다. 연해주지방에 남아있던 극소수의 고려인들을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1945년 이후 1960년대 까지 거의 출현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에서 교과서로 보급된 일부 한글용교재가 보급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인 정보자원은 극소수 개인에 의해 소장되거나 도서관이나 지방기록보존소 및 공문서관리기관을 통해 보존된 자료들만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한 고려인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해주지방에서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정보자원의 재생움직임이 나타났다. 한러수교 이후 우수리스크지방에서는 고려인들의 재이주현상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과 사회단체에 의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극동대학교 등에서는 독자적으로 한국어교재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후 연해주에서의 고려인 언어교육은 종교단체, 한국교육원이나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어왔다. 또 극동대학과 극동경제대학, 고려인재생기금, 한국문화원 등을 통해 차세대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강좌가 개설되게 되었다. 한편 1994년 4월부터 한·러혼용체인 〔원동신문〕이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1995년이후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글판을 발행했으나 1999년 8월이후 발간이 중단되다가, 고려인민족재생기금과 원동신문편집장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을 받아 〔원동(BOH AOH)〕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간되게 되었다.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신문이 일시 발행되었고, 이후 김발레리아 편집장 주도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주의 지원을 받아 2004년 3월 3일에 〔고려신문〕으로 재창간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장우권, 2005, 164 재인용). 이 밖에도 우수리스크에서는 〔후대신문ПОКОАЄНЦЄ〕이 2002년 이후 우수리스크 청년협회에 의해 발간되어 활동 중이다. 한편 하바로프스크에서는 하바로브스크 고려인연합회에서 〔연합회소식지〕를 월단위로 발간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연해주소식(ПРИМР-ВЄСТИ), 김광섭 편집장〕가 발행되고 있다.

(2) 사할린 지역에서의 고려인 정보자원의 전개

사할린 고려인사회는 두 가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고려인 집단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연해주를 거쳐서 사할린으로 유입된 고려인들과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한국인들로 구성된 독특한 형태의 사회였다. 러일전쟁 이후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하면서, 사할린에 강제징용한인을 방치한 채 물러가버림으로써, 비자발적인 이주고려인들이 생겼다. 그들은 전쟁포로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러시아 고려인도 아니었다. 일제식민지상태의 해소직후 러시아사회에 편입되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사할린지역에서의 정보자원의 발달은 다른 지역 고려인들과 많이 다르다. 1945년 이전에는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식민지 백성으로서 조선어로 된 정보자원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었다. 일본인에 의한 민족말살정책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자원은 모두 일본식이었다. 그러나 일제식민지 통치가 끝났을 때 러시아고려인들은 소련식 사회주의를 강요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사할린 고려인에 의해 1949년 6월 1일에 "조선노동자신문(소련공산당기관지)"이 창간되었다. 당시로서는 전러시아연방내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발행된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1960년대 이후 민족색깔의 이름을 포기당하는 압박을 받아, 1961년에 신문제호를 "레닌의길(소련공산당기관지)"로 수정하게 되었고, 상당기간 사할린 공산당의 지역소식지 기능을 수행했다. 이 신문은 1991년에 "새고려신문(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민족신문의 위상을 회복했다. 연해주 지역과 달리 사할린 지역의 고려인들은 언어적 정체성이 급격히 훼손당하지 않았다. 1945년부터 1964년까지 사할린국립대학교에는 조선어학과가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고려인들에 대한 한글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사할린 고려인들이 사용한 한글교재는 1930년대 발간된 자료들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교재가 모스크바 국립교육도서출판사에서 발간 한 자료나 북한에서 출판되어 제공된 교재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1964년 이후에는 사할린지역에 교재나 언론등이 완전 러시아화의 길을 강요받게 되면서 한인공동체의 정보자원은 대대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5년이후 사할린지역에서 발행된 고려인 정기간행물은 거의 없다. 1992년 창립된 〔한인회소식지〕가 연간 1-2회에 비정기적으로 간행된 것이 유일하다. 90년대 후반 극동 러시아지역은 케이블방송이 증가하면서 위성채널을 통해 한국소식을 쉽게 접할 기회가 생겨났다. 우수리스크와 사할린에는 한국어 교육원, 대학교 한국어과, 한글학교 등에 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한국에서 제공한 다수의 사전류, 교과서, 소설류, 북한에서 제공받은 사전과 사진자료들을 소장하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Ⅳ. 정보자원의 보존체계의 변화와 관리실태

1. 러시아 기록관리 제도의 전환과 고려인 정보자원

러시아는 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일찍부터 정착된 사회였다. 표트르대제를 비롯한 제정러시아시대 전제군주들은 자료수집과 보존에 관심을 기울였다.[18] 그 결과 19세

18) 표트르대제는 희귀자료를 모아 둔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설치하였고, 예카테리나여제 역시 진귀한 물건을 모아 둔 겨울궁전, 예카테리나 보석박물관과 같은 보존시설에 관심을 기울였다.

기 이후 각종 기록보존소들이 생성되었다. 군사참모본부기록보존소, 제정러시아 국립기록보존소, 법무부기록보존소, 군사기록보존소가 설립되었으며, 정보자원으로서 기록에 대한 관심은 정보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경험은 사회주의기록관리제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비에트정부가 사회주의혁명 직후 제정러시아로부터 획득한 국가자산 중 하나는 방만하게 흩어져있던 국가기록들이었다. 소비에트정권은 1918년 6월 "기록보존소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화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공포하여 제정러시아시대 설립된 각종 기록보존소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통합기록관리체계를 도입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기록보존소 산하 기록보관소가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었고, 공화국과 자치공화국, 변강주(krai), 주 등에도 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다.[19]

소연방의 해체는 러시아연방 기록보존체계의 급격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소비에트시대의 수많은 기록들이 러시아연방으로 이전되었으며 러시아연방 법령에 따라 재조직되었다. 제도변화의 핵심은 정보의 공개원칙과 국가기록과 비국가기록에 대한 분리를 통해 비국가기록에 대해서 개별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옐친대통령은 1991년 소련정권과 연방정부의 결별과 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대통령령에 따라 공산당산하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었던 공산당 기록보존소를 국유화시켰고, 국가안보위원회(KGB) 기록도 "소련국가안보위원회 기록에 관한 법령"을 통해 러시아연방 각료회의 기록관리위원회에 이전시켰다. 한편 1992년 제정된 "기록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한 규칙"은 러시아두마에 의해 승인되어 기록규제의 기본원리를 제시한 법령이 되었고, 1993년 7월 7일 구 러시아연방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러시아연방기록관리청 기본법령에 반영되었다. 이 기본법령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의 소유자에게 기록의 보존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비밀적 기록보존소의 설치를 금지시키고, 셋째, 생존인물에 대한 정보공개시 사생활침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기적 제약을 두고,[20] 넷째, 개인이 기록보관소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21] 상업적인 이용을 제한하고, 국민이 국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한 것 등이다. 이런 원칙은 국가기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도 적용되었다. "러시아연방 기록에 관한 규정(1994-03)"에 대한 대통령령에 따라 연방 행정기관의 문서보관소들은 자체 생산 영구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

---

19) 러시아연방에는 2200개 이상의 국가문서보관소와 기록관리센터가 있다. 전국적으로 14개의 연방문서보관소, 32개의 연방공화국 문서보관소, 12개의 변강(邊疆) 문서보관소, 134개의 주(洲)문서보관소, 2,060개의 시(市) 지구 문서보관소가 있다.

20) 개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자료기록은 생산된 지 7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보제공이 제한된다. 국가비밀 자료가 포함된 기록은 생산한지 30년이 경과한 후에 비밀을 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비밀 기록의 해제를 위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21)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한 기록의 소재에 대해 정확하게 인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3자에게 복사본을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기록정보를 출판하거나 인용할 때 정확하게 원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 등이다.

를 상실했고, 중앙정부가 수탁한 정보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지위만을 부여받았다.[22] 이 원칙은 "러시아연방 대통령기록보존소에 대한 규정(1994-09)"에도 적용되었다. 러시아연방기록관리청의 출현이후 러시아연방국가기록을 소유한 기관이나 개인, 비국가부문 기록을 소유한 기관이나 국가기록 자료를 연방기록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국가기록 운영에 따른 보상을 위해 러시아연방기록관리청 산하 국가기록보존소와 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었다.

2. 고려인 정보자료 소장기관 현황과 관리체계

(1) 고려인 정보자원의 개방과 정보자원 분포지역

제정러시아시대부터 연해주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연해주에 정착한 고려인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고, 고려인 문헌자료들은 지방과 국가의 문서보관소에서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그러나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비밀주의적 전통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고려인 정보자원이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에서 비밀기록의 해제에 따라 러시아관련 기록들에 대한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점차 러시아연방에서의 고려인 정보자원 소장기관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련정권하에서 고려인 자료는 비밀조항에 의해 50%이상의 자료들이 오랫동안 비밀문서 보관소에 비공개상태로 묶여 있었다. 1980년대 말 소련정부는 비밀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열람된 문서들에 대한 비밀 해지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고려인의 이민에 대한 기록과 소련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적 탄압에 관한 비밀자료들이 공개되었다. 이런 경향은 1991년 이후 강화되어, 소련정부의 핵심문서라 할 수 있는 코민테른 관련 문서, 공산당조직관련 문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중앙위원회 기록등이 개방되었고, 조선의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극동 지부 소속 조선사무국 자료,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소속 조선공산당 대표부 및 사절단 자료도 함께 개방되었다. 1993년 "국가기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러시아연방산하 각종문서보관소의 정보공개는 확대되었다. 러시아현대문서보관소와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의 문서자료가 공개되었고,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도 재소조선인연맹집행위원회 문서군, 1918-1938년 시기 전(全)러시아연방 중앙집행위원회 문서군 속의 조선인의 소련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 조선인 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 등이 개방되었다.

---

22) "수탁 보관"이란 실제적으로 러시아연방기록군 국가부문의 기록을 장관급 부처청 및 기타 기관의 기록보존소에서 장기 보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 모든 행정기관의 기록에 적용되면서, 소련정부의 기관, 조직, 사업체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국가 기록보존소로 이전되게 되었다.

(2) 고려인 정보자원의 보유기관별 현황

러시아에서 고려인정보자원은 전국적인 차원의 문서관, 관청차원의 문서관, 지방차원의 문서관으로 분류해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국규모의 국가문서관은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 러시아국립역사문서보관소, 러시아군사(軍史)문서보관소,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러시아해군성문서보관소,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러시아현대문서보관센타 등이 해당한다. 관청차원의 문서보관소는 제정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외무성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해군함대문서보관소,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방차원의 문서보관소는 이르쿠츠크주정부 국립문서보관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소연방 극동국립중앙문서보관소, 하바로프스크 변강 국립문서보관소, 톰스크에 있는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사할린주 국가고문서보관소 등이 있다. 이 도서관은 각기 다른 용도로 고려인정보자원 및 한국관련 자료들을 수집, 관리해오고 있다.

19세기 한러관계에 대한 기록은 제정러시아외무성기록보존소나 해군성문서보관소, 국립역사문서보관소에 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1945년 이후의 자료는 현재문헌보관센터나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러시아국립경제문서보관소, 러시아외무성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국방부중앙문서보관소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연해주와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관련 기록은 대부분의 문서관에 많이 수록되고 있지만 이르크츠크문서보관소,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현대문헌보관센터 등에 집중되어 있다. 고려인의 이주와 관련된 기록문서들은 이르크츠크와 톰스크 등 러시아연방의 중앙기록보존소의 지방분원이 설치된 지역과 소규모 지방문서보관소 등으로 분리되어 보관되었다. 한편 연해주 고려인의 사회생활 관련 정보자원이 집중된 곳은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연방 연해주변강 국립문서보관소, 소련극동국립중앙문서보관소, 하바로프스크 변강 국립문서보관소, 국립레닌도서관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려인관련 정보자원을 보유한 국가도서관으로는 샬트코프쉐드린도서관, 상뜨페쩨르부르크대학 도서관, 동방학센타 도서관 등이 있다. 이들 도서관들은 고려인관련 비밀자료의 해지와 공개에 따라 자료열람에 대비해 자료관리를 꼼꼼히 준비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도서관은 자료목록을 찾고, 자료를 검색하고, 대출을 받아, 복사를 할 수 있는 이용자 접근과정이 복잡하고 곤란한 도서관들도 많았다.

한편 고려인 문헌자료에 대한 발굴과 관리, 및 유통조직으로서 교육센터, 출판사, 고려인사회단체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88년 모스크바에서는 박미하일의 주도로 모스크바고려인협회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계기로 전러고려인연합회가 출범했다. 이런 고려인사회단체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고려인의 권익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러시아 고려인사회가 부활의 몸짓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990년부터 1991년 그리고 2000년까지 구소련지역의 수많은 지역에서 고려인사회단

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들 중 일부는 고려인의 연해주이주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도 있고, 일부는 고려인의 러시아국적회복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발굴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사회단체의 지원이 잇따랐다. 따라서 일부 헌신적인 고려인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모스크바에 한글교육기관이 들어선 것은 이런 노력의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또한 고려인정보자원의 발굴과 고려인문화의 재생 및 문화적 복원을 지향하는 일종의 지식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 결과 출판사, 언론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 생산기능이 부활했다. 이 과정은 사할린, 연해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모스크바의 지식인들의 결합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V. 요약과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려인사회의 정보자원의 생성과정, 매체특성, 자료관리체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 고려인들은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한인공동체를 기반으로 정보자원을 생성시킨 정보자원의 생산자들이었다. 연해주 고려인공동체의 해체 이후 고려인 정보자원은 심각한 존망위기에 처했다. 강제이주 이후 소련에서 1930년대 이전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은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정치적 항의의 의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또 많은 고려인관련 기록이 철저하게 비밀서고에 방치된 채 고려인과 격리되었다. 1945년 이후 한반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소련정부와 모스크바에 진출한 고려인 및 러시아 지식인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되면서 종합적인 러시아 한국학연구체계가 발전하게 되었다.

소련의 해체이후 신러시아연방에 의해 국가자료공개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금기되었던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할 기회가 출현했다. 이에 따라 고려인사회에서는 강제이주자의 권리회복이라는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고, 한국사회에서도 고려인 정보자원 발굴에 대한 지적 관심이 증가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많은 한계를 보여왔다. 여전히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연구단계는 자료수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보자원의 분포상황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한글과 러시아어에 능통한 고려인 세대들이 고령화되고 사회적으로 퇴장하면서 고려인사회에서 한글정보자원의 관리필요성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러시아정부가 기록공개에 개방적 태도를 취했지만, 국가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언제든지 폐쇄적인 태도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고려인은 한민족이자. 러시아국적자이므로 그들이 민족자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한민족 정보자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둘째, 재러 한인정보자원의 개발과 발굴을 위해 현지 고려인사회와 국내학자간 인적네트워크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정보자원이 러시아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글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와 사서들과의 접촉면을 높이기 위해 국내도서관들과 러시아 지역 도서관간 학술적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사각지역에 방치되어 소멸위기에 있는 한민족 정보자원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어에 익숙한 고려인들이 생산한 정보자원들의 한민족 정보자원으로의 편입을 위한 포괄적 개념정립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기석 · 전현수 · 이향규, 1998. 〔외국소장 한국관련 자료현황 및 활용방안〕, 국무총리 산하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998. 06.

김동언 · 러스킹, 2002. "개화기 러시아 관련 한글자료에 대하여," 〔한글〕 255, 2002. 3.

김떼밀. 1998. "러시아 연해주 한인의 문제,"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학회, 제7호.

김연수, 1975. "동구에서의 한국학연구," 한국연구, 제4권, 제10호.

김정현, 장우권, 김홍길, 2004. "러시아에서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4호.

김필영, 1998. "한인 강제이주와 해삼위고려사범학교 한국학 도서의 행방", 〔한글새소식〕, 제299호.

김현택, 2000. "1990년대 러시아한국학 연구의 내용과 방향," 1998년 학술진흥재단부설 연구소 지원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꼬즐로프 웨, 뻬. 2000. "러시아 기록관리의 현황", 〔21세기 기록보존과 한러협력방안〕 한러기록보존전문가 워크샵 발표논문집.

니꼴라이 부가이. 최정운 역, 1996. 〔재소한인수난사〕, 세종연구소.

또로뽀쁘, 아, 아, 2000. "러시아 극동역사문서보관소 소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조선인 이주자관련 문서에 대하여," 〔21세기 기록보존과 한러협력방안〕, 한러기록보존전문가 워크샵 발표논문집.

보리스 박, 니꼴라이 부가이. 2004.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블라지미르 뻬트로비치 꼬즐로브, 파트리샤 케네디 그림스테드 편, 1997.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모스크바와 상뜨페쩨르부르크〕, 모스크바, 고문헌학센타(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

И ЦЕНТР〕,
빠블로바 떼. 에프, "러시아연방기록보존기관의 한국근현대사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한러기록보존전문가 워크샵, 21세기 기록보존과 한러협력방안 발표논문집, 2000. 11.
심헌용. 1999. "러시아의 강제이주된 민족들의 명예회복 정책," 〔재외한인연구〕, 제8호.
엄순천, 2003. "러시아에서의 한국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2002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사업연구과제.
와닌 유리 와실리비치(전현수역),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해방 직후 한국관계 자료들〕," 〔역사비평〕, 1994. 봄.
와다 하루끼. 1989. "소비에트 극동의 조선인들 1917-1937, 〔소비에트 한인 백년사〕, 태암.
이계룡. 2003. 〔고본지: 고려인들의 토지사랑, 텃밭의 고려인 러시아 대지를 꿈꾸다〕, 행복한집.
이상근. 2000., "제정러시아의 연해주 경영과 한인이주," 〔사학연구〕 제60호, 5월호.
이상일. 1997. "지료의 보고를 찾아서 러시아를 가다", 근현대사강좌 제10집.
임영상·방일권, 2004. "고려인연구와 영상물, 영상아카이브", 〔인문콘텐츠〕, 4호. 인문콘텐츠학회. 11월.
전현수. 1993. "해방직후 북한사 연구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10호,
전현수. 2000. "한국근현대사 관계 러시아자료의 공개 및 연구현황", 〔21세기 기록보존과 한러협력방안〕, 한러기록보존전문가 워크샵 발표논문집.
텐 유리 미하일로비치 저, 이원용 역. 2003. 〔나의사랑 러시아〕, 재외동포재단.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한 발레리 세르게이비치 공저, 김태항 역, 1999.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고담사.

2) 해외문헌

Suh, Dae-Sook. 1987. "Soviet Koreans and North Korea," in Suh, Dae-Sook(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Honolulu,, pp.101-128.
Yun Byong Sok. 1989. The national Movement and the New Korean Village in Russian Territory, in *Hanguk Minjok Undongsa Yonku*, No. 3, pp.165-186.
Hurh, Won Moo and Kwang chung Kim, 1990. "Adaptation stage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male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4(3).

Pak Kyong Nam. 1993.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Korean Resident in Russia," *Kujunonchong*, No. 7, pp.31-38.

Pak Tae Song. 1991. History of Korea-Russia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hosen Period, -*Slav Yongu*, No. 7, pp.155-178.

Арсеньев В. В 1951. "дебрях Уссурий ского края." [Arsen'ev V. In the wilds of the Ussurj Krai] M.

Арсеньев В. По 1955. Уссурий скому краю. Arsen'ev V. Travels in the Ussurj Krai] M.

KCI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ethnic Information Resources among Russian Koreans

Kim, Hong-Gi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Russian Korean(Kareiski)'s current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resource and found to archiving system, mainly we focus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source and archival management. After the late of 1860th, a number of peoples in the border immigrated from Korean Peninsula to Far East of Russia. The number of Korean immigrant are rapidly increased until 1930th. Russia Kareiski are blessed with abundant community while they had the right of cultivation. Especially they play important role as a supporters in history of the ethnic independent movement. and they also contributed as the economic developer in siberia in Soviet Union. Kareiski had experienced as crisis of community through coercive immigration by the Soviet Union. they were moved from far east to middle asia, and Kareiski troubled survival problem. However they revived and restarted building ethnic community with assistance of residents. Throughout the trouble in Soviet Union, Kareiski revival and recreated russia korea diaspora culture. but they failed handing down korea culture the next generation. although first generation is disappeared, and 3th generation lost and unskillful the Korea language as forefather's. We tried to research about the manage the resource in the fronted to disappearing crisis in Russia and helped the connected the between old russia Kareiski generation and old and new generation. It might be concluded that research group must jointed with the experience and redesigned the access program and collective system in Russian Federation.

Key Words : diaspora, information resource, archival management, ethnic community.